

國統調 89-12-149

歸順者の證言을 통해 본
北韓體制 變化實態 研究



1989

연구책임

이문웅(서울대 교수)

國土統一院

책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歸順者들의 證言을 통해 당시의 北韓住民들의 生活實態 및 意識構造를 深層分析, 南北韓 異質化 克服方案을 講究하고자 위촉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關聯分野의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89. 12.

調查研究室

目 次

머 리 말	3
1. 住民生活의 變化	4
2. 文化生活의 變化	11
3. 社會統制	13
4.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의 再組織	16
5. 家族關係	18
6. 婚姻과 離婚	23
7. 親族制度의 變化	26
맺 는 말	31
◇ 별첨 : 최근 북한실상에 대한 歸順者 證言內容 要旨	33

머 리 말

분단후 자유를 찾아 남하한 귀순자들의 수는 이제 수백명에 달한다. 본 研究에서는 이들 귀순자들의 證言을 통하여 공산치하에서 北韓住民들의 생활문화에 나타난 변화양상을 把握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960년대에서부터 극히 最近에 이르기까지 北韓에서 생활한 經驗이 있는 귀순자 12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사실 이들은 분단후 공산치하의 北韓에서 살다가 월남해온 전체 귀순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證言을 통해서도 北韓社會의 전체적인 흐름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本 研究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래로 北韓 住民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주민통제의 강화로 집약될 수 있겠다. 이는 1960년대 말, 특히 「푸에블로호사건」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은 北韓 정권당국에 의하여 외부로부터의 하나의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졌었고, 住民統制의 강화에 의한 내부적인 統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70년대에 들어서서는 金正日의 등장과 함께 북한 정권의 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주민통제는 그 강도를 더해갔고, 이는 思想鬭爭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전역에 걸쳐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住民들을 바깥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벽을 높게 그리고 두텁게 쌓아놓았다. 철저한 계획경제 및 住民統制가 可能했던 것도 바로 폐쇄된 社會文化體系 때문이었다. 주민들을 이런 폐쇄된 체계속에 갇아둘 수 있는 한, 후시 체제에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외래적인 社會文化要素에 住民들이 ‘汚染’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이제 귀순자들의 證言을 통해 把握할 수 있었던 북한이 經驗해온 社會文化的 變化的 큰 흐름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1. 住民生活의 變化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衣·食·住의 분야에서 북한 社會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國家統制는 결코 緩和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의·식·주가 전체 社會文化體系의 부분이지 결코 獨立的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 주민들의 衣生活에서 칼라와 디자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외국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地域 住民들의 의생활을 개선시키려는 努力的 일환인 것 같다. 그러나 의류산업 그 자체가 소비재 분야에 속하고, 또한 이는 國防 및 重工業 우선 정책에 밀려 여전히 뒷전에 머물고 있기에 극히 낙후되어 있다.

사실 종래 北韓住民들의 의생활에서는 단일의 색상에 크기도 다양하지 못했던 것이 特徵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변화의 조짐은 뚜렷한 것 같다. 82년경부터 나일론과 메리야스에 무늬를 많이 넣은 옷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84년경부터는 이런 옷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의상이 칼라화되고, 검정바지가 없어질 정도에 이르렀다. 86년 2월에는 '女子가 바지를 입으면 朝鮮여성답지 못하고, 국방색 또는 검정색 옷은 外國人들이 군복으로 오해한다'는 이유로 이런 옷의 착용을 금지시킨 金正日의 지시를 귀순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여하튼 이런 새로운 주민복장 규정과 함께 衣生活의 側面에

서 이전과는 분위기가 한결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민복장과 관련한 政策이 外國人の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北韓도 어쩔수 없이 비록 한정된 範圍에서나마 외국인에게 노출되고 있고, 자신들이 그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하는 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런 변화는 大學生의 교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 綜合大學의 경우 여학생 복장으로 오랫동안 고집해오던 傳統的인 한복을 양장으로 바꾸고 말았다. 즉 1978년부터 실시된 女學生 복장은 하복이 흰저고리와 검은 치마에서 브라우스, 잠바, 스커트로 바뀌었고, 동복은 검은 치마, 저고리에서 하복과 같은 복장에 코트모양의 상의를 걸치는 등 한복에서 양장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여학생의 경우 구두의 굽이 6, 7 센티 정도되는 신발에, 머리 스타일도 파마머리를 許容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바깥 社會의 추세를 意識하면서 내려진 결정임이 분명하다.

食生活은 철저한 배급제를 통하여 住民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使用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住民들의 食生活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영양공급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좋겠다. 직업선택의 自由, 旅行의 自由,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바로 배급제에 의하여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北韓의 어느 누구도 官의 統制를 벗어나거나 어기고서는 배급을 타지 못해서도 살아나갈 수가 없다.

식량배급제는 부족한 食糧의 합리적인 배분에 의한 공급체계를 確立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제 北韓社會에 거의 뿌

리를 깊게내린 식량배급의 관행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실업자, 노약자, 환자 등의 부양가족과 고등중학교까지의 子女는 각 가구수의 職場에서 배급표가 나오고, 專門學校 및 大學 在學生은 학교에서 보름에 한번씩 배급표가 나온다.

이때 배급량에는 대상의 年齡 및 직종에 따라 분명한 차등이 있다. 또한 地域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서나 식량배급제가 住民統制의 效果的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體系에 따르면, 부부중 한사람이 직장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배급량이 정상적인 職場人의 700 그램에서 300 그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부인들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더러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인들이 있지만, 이때에도 배급이 300 그램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인민반에서 각종 勞力動員에 내몰기 때문에 그런 부인들이 스스로 직장에 나가는 傾向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식량배급제는 모든 이용가능한 勞動力을 철저히 노동현장으로 동원하기 위한 效果的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음이 분명하다.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住民들에게 '근검 절약'을 강제하는 체제는 식량배급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귀순자들의 證言에 따르면 월 2회 배급시마다 '균량미 비축'이라는 명목으로 2일분을 감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87년에는 全體적으로 食糧이 모자라 人民들에게 食糧節約을 위한 인민반장 회의를 자주 열었고, 절약실적을 調査하여 節約을 많이 한 세대에는 '상품배정표'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 배정표는 품귀한 물품이 공급되었을 때 적정량을 동 인민반, 그리고 각 세대에 공

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명이다. 이와같이 식량배급시에 일정량의 절약분을 除外한 나머지를 배급받으며, 이때 ‘절약증명서’를 받게 된다.

식량배급을 통한 住民統制는 「糧券」의 발급과도 연결된다. 즉 北韓의 모든 주민은 자신이 먹을 食糧을 배급받기 때문에 혹시 외식을 한다든가, 旅行중 집 밖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배급받은 식량분을 제시해야하는 問題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양권이다. 즉 공식적으로 당국의 허락을 받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여행중 消費할 식량을 당국에 반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권을 받게되고, 집 밖에서 식사할때마다 이 양권을 제시해야만 한다.

85년까지는 식당이나 국수집에서 현금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었으나, 85년 이후로는 돈과 양권을 함께 제출해야만 식사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자 외에는 양권을 使用하는 외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양권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자신이 먹을 食糧을 직접 지참하는 길 밖에 없다. 사실 農村 사람들이 都市의 친척이나 친지를 방문할 때는 식량을 휴대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都市의 住民도 이를 환영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도시에서는 친척집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양권을 가져다 주어야 식사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더러는 糧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이 얼마 되지 않고 職場의 작업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배급소에 미처 신청할 時間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한번 친척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했다면, 언젠가 그 친척이 내집을 방문했을 때 대접하면 서로간에 주고 받는 것이 상쇄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호혜적인 교환체계가 現在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식량배급제, 주민통제, 식량부족, 철저한 勞動力 동원 등 이 모든 것은 現在 북한의 社會文化體系에서 각기 獨立된 영역이 아니라 密接히 관련을 맺고 있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배급제는 住民統制를 위한 效果的인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고, 모든 이용가능한 勞動力을 철저히 적어도 가사노동의 영역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책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식량부족의 狀況에 대처하기 위한 戰略的인 장치이기도 하다. 한정된, 그리고 부족한 물자를 수요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는 배급제가 최선의 方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모든 住民들의 수요의 사정을 일일이 把握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러는 배급받은 분량 이상의 식량을 구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터밭에서 소규모로 생산한 食糧을 팔아 용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이런 問題가 비공식적인 이른바 암시장에서의 암거래 形式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래에 이를 당국이 인정하여 「장마당」의 形式으로 종래의 암거래를 흡수하였다. 간혹 「農民市場」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장마당은 시(군)단위로 한개 또는 두개씩 읍내의 공터에 가건물을 짓고 設置하여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판매자들은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장세’로 낸다.

家庭에서 제사나 생일잔치, 결혼잔치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장마당에 가서 필요한 부식을 구입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공식적인 배급소에 비해 어떤 것은 10 배가 넘을 정도로 높아서 극히 소량만을 구

입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住生活도 식량배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국가의 統制下에 있다.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산다거나, 넓은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여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住宅은 職場에서 가족수와 지위 등을 고려하여, 國家로부터 그 직장에서 할당된 주택 중 하나를 배정받게 된다. 이때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입사증’에는 어느 아파트의 몇층 몇호가 기재되어 있다.

住宅建設에서는 특히 都市를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 귀순자들의 證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住宅建設이 단층 주택보다는 공동 아파트 건설에 더욱 치중되고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의 양변기화되는 등 변화의 조짐은 뚜렷하다. 그러나 아직도 人口의 자연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현상은 심하다.

젊은 신혼부부가 住宅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程度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부족한 데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수년이 지난후에 배정받아 살림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과 부모가 일시 떨어져 살아야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방 한칸에 일가족이 함께 기거하기도 한다. 또한 방이 여유가 있는 家族의 경우에는 당에서 다른 家族과 함께 살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배정받은 住宅의 방 한칸을 빌려주는 것은 집 주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사항이기에, 더러는 신혼부부가 住宅을 배정받을 기약이 없어서 식구가 적은 家庭의 방 한칸을 빌리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방을 배정받지 못한 부부는 대개 주택배정시까지 工場企業所나 합숙소 생활을 계속하거나 부모집에 함께 기거하

기도 한다. 장남인 경우에 부모를 모시는 傳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주택사정으로 최근에는 자식의 수가 적은 아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傾向이 있다고 한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현대식 아파트가 많이 建設되었다고는 할지라도 주거생활 그 자체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住宅의 規模는 전형적인 노동자주택이 부엌과 방 두개의 10 평 내외가 고급에 속하고, 대부분은 방과 부엌이 함께 있는 것과 작은 방 등 8 평 정도이다. 8세대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국가주택」으로 불리우는 아파트는 ‘보위부 아파트’ ‘人民委員會 아파트’ ‘군인 아파트’ 등 직장별로 名稱이 붙어있어서 일반 노동자의 입주는 어렵다. 가정의 燃料는 세대당 연간 3kg씩 배급되는 갈탄(유연탄)이 전부이고, 이것도 최근에는 2kg 밖에 공급하지 않아서 그 부족량을 工場, 企業所에서 나오는 가루로 된 석탄인 ‘연진탄’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전력의 부족으로 가정에서 쓸수 있는 전기도 제한되어 있고, 수도물은 시간제로 공급되며, 고층 아파트에서의 수세식 화장실마저 물을 받아두었다가 수동으로 씻어내려야 하는 등 일상생활 全體가 이상적인 디자인데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家族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比率은 극히 낮은 것이 特徵的이다. 즉 住宅使用料는 가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기세와 물세를 합해서 월 4원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溫水와 煖房을 합해서 월 13원정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각종 소비재 생활용품의 부족현상은 현저하지만, 사실 住民들은 바깥 사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 文化生活의 변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文化生活’이라는 말은 文學, 藝術, 娛樂 및 취미생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모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는 活動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文化生活은 현재의 북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치스러운 資本主義的인 발상에서 나온 나태한 생활관습으로 간주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文學과 藝術은 북한당국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회동원을 위한 수단이요, 國家의 시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活用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的인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순수 예술’이라는 것은 北韓社會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文學 및 藝術觀은 학교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敵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社會主義的인 애국심을 고양시키려는 내용의 주입식 교육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함으로써 내부적인 統攝을 이룩하려는 戰略的인 장치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北韓의 映画, 演劇, 新聞, 放送 등의 문화매체들은 정부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영화 및 연극의 관람도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관람되고 또한 그 內容에 대해 어느 정도로 철저히 알고 있느냐

는 것이 마치 國家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라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新聞이나 放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있는 지식...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부당국의 선전내용이지만...을 자기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곧 社會政治活動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北韓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곧 이런 선전내용을 익히는 작업이다. 다른 한편 北韓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적인 水準에서의 창조적인 사고는 불필요한 것일 뿐만아니라, 아예 危險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수령과 指導者의 ‘말씀’이 곧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한발짝이라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體制를 부정하는 반역의 行爲로 規定되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北韓에서의 생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아예 ‘娛樂 및 취미생활’이라는 개념이 存在하지 않은 것 같다. 귀순자들의 證言으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어서, ‘여가선용’이라는 말도 듣기 힘들다는 것이다. 등산, 낚시, 바둑, 체력단련을 위한 스포츠의 개념도 아예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時間도 없을뿐더러, 이런 식으로 여가를 즐길만한 마음의 여유도, 재정적인 여유도 없다. 소수의 권력층을 除外하고는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바쁘다 보니 이런 한가한 생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관혼상제, 생일 및 회갑잔치, 각종 세시풍속 등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도 거의 예외없이 간소화되었거나, 그 內容에 있어서 상당한 변용을 經驗하였다. 이점은 傳統的인 信仰生活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의식 속

에 뿌리깊히 남아있는 傳統的 文化要素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해 줄 물질적인 여건이 이미 상실되어버린 데에서 전통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程度로 변모된 채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3. 社會統制

북한의 住民이라면 누구에게서나 社會·政治的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國家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똑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主體思想이 무엇인가?”, “고려연방제가 왜 우월한가?”, “南韓에서 미군들은 왜 철수해야하는가?”, “무엇이 統一을 막고 있는가?”라는 등의 政治的인 문제들에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정해답’을 많이 들어왔기에 누구에게 물어도 거의 거침없이 똑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思想教育을 통한 社會統制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北韓에서의 住民生活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간에 職場에서의 일에 못지 않게 社會·政治的인 活動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로청, 직맹, 여맹 등 사람들은 다양한 제2차적인 집단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이 집단들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活動에 能動的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등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은 時間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빈틈이 없고,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이외에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政治的인 모

임을 통해 선전용의 知識들을 학습하는 결과로,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國家의 공식적인 견해를 그대로 설명할 정도로 숙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의 方針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식의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언제나 國家에서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최선의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기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한다는 대답뿐이다.

매일 같이 하루의 勞動이 끝나고 나서 작업반별로 또는 직장별로 벌어지는 사업총화 또는 작업총화, 그리고 金日成主義 연구반 학습회, 당 역사 연구반 학습회, 화상기 학습회, 金日成의 교시와 역사 학습회, 金正日 덕성실기 학습회, 신문 독보회, 시사해설회 등 직장내의 각종 政治組織을 통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學習會들은 바로 사회통제를 위한 장치들이다. 또한 당원인 노동자들은 직업동맹 총회, 당 총회, 당 분조회, 당 학습회, 직장 총회, 작업반 회의, 작업 분조회의 등에 참석하게 되고, 사로청원은 사로청조직에 가담해 「組織生活」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北韓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組織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데로 자발적으로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北韓에서 살기위해서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組織生活」은 해방후 북한의 住民들이 共產治下에서 치루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댓가였다. 전통적인 자급자족의 농민사회 및 이에 수반된 경제 체제로부터 경작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共產主義體制로 이행되면서도 住民들을 여전히 體制의 울타리 속에 묶어 둘 수 있는 유일한 方策은 철저한 「組織生活」을 통한 住民統制의 장치들

이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식량배급제 및 주요 생필품 배급제도는 바로 이런 住民統制를 위한 效果的인 장치였다. 누구든 어떤 組織에 속해야만 적어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條件인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인민반조직 및 5호담당제는 住居地域別로 이루어지는 주민통제제도에 속한다. 개인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住民組織을 통해 상부에 보고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못하는 어떤 私的인 일을 본인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죄악시키는 社會的인 풍토로 변화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민반 組織이나 5호담당제는 주민감시체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다.

또한 個人이 자신의 職業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없다는 점 등도 폐쇄적인 社會政治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效果的인 제도적 장치임이 틀림없다. 이는 人間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이른바 ‘主體思想’ 그 자체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귀순자들의 證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한가지 역설적이고도 흥미있는 사실은 北韓의 住民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운명을 左右하는 주인으로 認識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現實에 適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것이 이런 社會政治體制가 지탱해온 바탕을 제공했던 것 같다.

4. 社會主義 革命과 사회의 재조직

분단과 함께 北韓에 밀어닥친 ‘사회주의 革命’은 실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밀어닥친 태풍에 비길 정도였다. 이것은 社會文化體系의 물질적인 기초를 재정비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傳統的인 社會組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사유재산제, 특히 토지사유제의 폐지였다고 생각한다.

공산화 초기만 해도 북한사회는 基本的으로 농경사회로 남아 있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농경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토지사유제는 傳統的인 秩序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런 전통적인 질서를 깨고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한 첫 단계로 北韓의 共產政權도 역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사유제를 폐지하여 사회를 재조직하는 길을 택했다.

사유재산제의 폐지는 단지 經濟體制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조직 특히 家族制度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사유재산제의 폐지로 재산상속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고, 이제 각 가족은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무런 財產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로서 家長은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인 강력한 權威를 상실하고 말았으며, 가족원들은 각종 생산활동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노력공수를 벌어들여 오게 되었다. 傳統的으로 家長의 권위를 뒷받침해준 가장 큰 요인의 하나였던 사유재산제 및 재산상속제의 소멸은 家長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고 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土地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부모는 結婚해서 분가해나간 자식들 및 그들의 家族을 統合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機能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분가는 어느 정도 재산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재산분배가 包含된 概念으로서의 분가는 이제 北韓 社會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부모가 아직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노력공수를 벌 수 있는 한 자식은 結婚 후에 곧 獨立해서 하나의 새로운 가구를 창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각자 투입한 勞力에 대한 댓가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구를 창설하기란 住宅問題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社會主義 革命은 전통적인 질서의 재조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家族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단위로서의 家族의 단합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이점은 “家庭은 社會의 세포이다”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把握하고, ‘社會主義 革命’의 요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가정의 革命化’가 곧 全사회를 革命化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기서 家庭의 革命化라는 것은 가정 또는 넓게는 가족제도의 어떤 革命的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革命化하는 도구로서의 ‘정치사상교양의 場’으로서의 家庭의 기능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家族을 단위로 統合되지 않고는 그들을 더 높은 차원의 국가체계로 統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社會主義 革命은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양식에서 부정적인 側面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정작업을 요하고 있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社會構成員들의 의식 및 행동면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형식주의, 무책임성, 주먹구구식,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종파주의, 부화방탕 등. 그러나 이런 공격대상에서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家族主義’이다. 이것은 家族을 ‘社會主義 革命의 요새’로 간주하고 社會의 기본적인 단위로 把握하고 있는 점과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 이 家族主義에 대한 비판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밖으로 뻗는 제2차적인 관계에 의거한 종파주의 또는 파벌의 형성을 경계하기 위한 책략의 하나이지, 家族主義의 원래의 의미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역설적인 것 같지만, 社會主義 社會 그 자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把握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틀이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5. 家族關係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의 중심적인 軸은 父母와 자식간의 관계였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것이 “개인적인 財産關係에 의존한 연속적인” 관계로 파악되었지만, 과연 이런 父子關係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統合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孝」의 개념은 현재의 북한의 생활조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크게 變貌된 것 같다. 또한 부모의 권위도 크게 弱화된 것 같다.

그러나 「孝」의 관념은 변용된 채로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것 같다. 즉, 孝는 여전히 ‘美風良俗’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같이 높고 바다 같이 깊은 것”에 비유되고 있어, 혹시 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틀은 殘存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孝」개념은 공산화 이전과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北韓의 道德教科書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老後를 돌보지 않는 등의 扶養의 義務를 잘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이점은 분명하다.

父母에 대한 자녀의 義務로서의 孝道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孝는 ‘人民과 黨의 이익’에 일치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자기를 낳고 길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北韓의 정치교양사업에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생시에 ‘인민과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부모가 이른바 ‘반동자’일수도, ‘인민의 적’일수도 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인민과 당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런 부모에게는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러는 공산화 이전의 특권층 또는 ‘不純分子’ 출신의 자식들이 공개석상에서 부모의 행위를 공공연히 批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바,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만 이 共產政權에 대한 그들의 忠誠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모에 대한 態度에 관한 지침은 특히 成分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歸順者들의 거의 一致된 見解였다. 즉 부모나 그 위의 조상이 과거로 인하여 成分이 나쁜 계층으로 分類된 경우에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비판하고 살길을 찾기보다는 社會, 政治的인 차별로 인한 고통을 父母와 나누어 가지면서 現實生活에 適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연속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더러는 부모나 시부모를 賤待하여 인민반의 회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예도 있고, 부모를 모시지 않

려고 하여 비판을 받든가, 또한 그것이 부부싸움의 계기가 되는 예도 더러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尊敬하고, 정성껏 모시는 전통적인 父子關係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長男이 부모를 모실 의무는 없다. 노동력이 있는 한 父母는 자신이 노력공수를 벌어서 살고, 늙어서 노동력이 없으면,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산다. 이제는 老年에 함께 살 자식이 꼭 아들일 필요는 없고, 더러는 딸과 함께 살기도 한다지만, 역시 전통적인 관념이 굳어져 있어서, 아들이 있는데도 혼인해 나간 딸과 함께 餘生을 보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기에 노후의 生活保障을 위해서라도 딸보다는 아들 낳기를 선호하는 觀念이 여전히 강하게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結婚한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것은 家族關係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物理的으로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유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의 전통적인 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자식들이 결혼 후에 비록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집안의 대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데로 찾아본다든가 休暇를 利用해 방문하는 등의 紐帶를 가지려는 努力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北韓에서는 비록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한다는 행위규범은 그대로 남아있다고는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식의 「孝」 또는 「孝道」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들어보기 힘들다는 점은 歸順者들간에 일치된 見解였다.

生産增大를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勞動力을 동원하는 政治·經濟體制下에서 부인들의 生産活動에의 참여가 증시됨으로 인해 부인들, 또는 넓게는 여성의 社會的 지위는 현저하게 상승된 것 같다. 부인도 남편에 못지않게 노력공수를 따오고 家計收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서 부부관계도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生計手段이 바로 ‘일하는 능력’ 이기에 부부간의 協同과 團合에 기초한 가정생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女性同盟이나 職盟 등과 같은 정치적인 단체를 중심으로한 조직생활을 통해 혹시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權威만을 主張하거나 부인을 학대하는 등 家政不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부인들의 地位를 上昇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傳統社會의 家庭生活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누이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이중에서도 특히 姑婦關係는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競爭關係에서 비롯된 점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며느리가 既存의 가정 내지 家門에 「이방인」(outsider)의 신분으로 들어왔기에 시댁의 家風 내지는 생활방식(subculture)에 적합하도록 새로이 길들여져야 한다는 觀念이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데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北韓社會에서는 며느리도 완전히 한 구성원으로서 家庭 밖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갈등관계도 상당히 약화된 것 같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심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女盟」과 같은 조직에서 壓力을 가하고 그런 시어머니는 批判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노동이 가능한 모든 女性들이 生産活動에 동원되면서, 이전에 며느리가 가정생활에서 맡았던 일 중의 많은 부분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맡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가정내에서의 며느리의 일을 더 많이 도와줄수록 며느리는 더많은 시간을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럴수록 더 많은 노력공수를 벌어들일 수 있다.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어린 손주들을 돌보고, 農繁期에는 부엌일까지 맡아서 하는 일은 이제 흔히 있는 일이

라고 한다. 이리하여 며느리는 손주들을 거두어 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오히려 選好하는 경향도 있어서, 더러는 그런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누이와 올케간의 관계도 對立과 갈등보다는 相互協助의 관계가 강조된다. 그들은 생산활동과 社會政治的인 조직생활에 함께 參與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대립관계는 弱화된 것 같다. 사실 歸順者들 중에는 시누이와 올케간의 관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봤다가나 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올케는 結婚과 함께 친정으로 부터 얻어갈 재산도 없고, 시누이와 이해가 상충할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 전통적인 “여우같은 시누이”의 이미지는 消滅되었거나 거의 消滅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제자매들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서로간에 으르렁거리며 競爭하는 전통사회에서의 재산분쟁 같은 것은 이제 북한사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서로간에 다툴만한 문제도 없어 갈등이 비교적 적다. 형제자매들간에는 友愛가 특히 강조된다. 서로간의 행동은 비공식적이고, 연령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결혼과 함께 동생이 兄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약간 공식성이 加味된다. 장남은 아무런 특전도 없지만, 특별히 불리한 責任을 져야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老年期의 부모는 대체로 고향을 떠나지 않은 채 결혼해서 사는 아들중 한사람이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地域的으로 멀리 떨어져 살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은 부모의 자식들로서의 유대감을 계속 維持하려고 노력한다.

6. 婚姻과 離婚

젊은 男女가 함께 생산활동 및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男女間의 교제의 機會은 전통사회에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아졌다. 北韓의 어느 地域을 막론하고 특히 정치적인 色彩를 띤 모임은 거의 매일 저녁에 열리고, 그만큼 男女間의 社會的인 接觸은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男女간의 社會적인 거리감은 더욱 좁혀졌고, 동일한 직장 및 생산단위 내의 구성원들끼리 結婚이 이루어지는 事例도 많아졌다.

이와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남녀교제를 수반한 새로운 청년문화와 함께, 結婚을 위한 배우자 選擇過程에서 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는 훨씬 약화된것 같다. 배우자의 선택요건으로 가장 重要視되는 것은 性分 및 黨性이다. 성분이 나쁜자들은 결혼을 통해서도 결국 더욱 社會的으로 격리되는 결과를 招來한다. 연애를 통해서나 중매로 일단 結婚할 의사가 있으면 組織을 통해 보고하고, 組織에서는 성분과 黨性を 조사해서 혹시 許諾될 수 없는 結合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에게 이를 通告해준다.

배우자 선택에서 가족의 배경, 특히 계급적인 성분 또는 이른바 ‘토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성분이 나쁜 사람인 경우, 자백 개준하여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示唆하고는 있지만, 귀순자들의 진술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의 경계를 결코 넘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 일단 「不純分子」나 「反革命分子」로 낙인이 찍힌 家族 出身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出世의 길이 거의 완전히 遮斷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現在의 북한에서 結婚相對者로 제대군인이 특

히 인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만 하다. 北韓 정권은 젊은이들 중 당성이 강하고, 革命的인 배경이 좋다고 판단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른바 「붉은 기수들」만을 人民軍에 선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軍服務를 마친 靑年들에게는 더욱 밝은 미래가 保障되는 셈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제대 군인이라면 신랑감으로서의 모든 肯定的인 요건들을 갖춘 셈이다. 이것은 “인민군에 뽑힐 자격이 없는 남자에게는 처녀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한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北韓社會에서는 結婚이 男女 두 사람이 소속한 家門끼리의 結연이라기보다는 당사자 두사람의 結合이 더욱 強調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당사자들의 愛情에 기초한 結合이 중요시 되면서 교제 단계에서의 성문제도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다. 未婚者들의 性關係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남녀간의 社會적인 接觸의 機會가 많아진 현재의 社會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結婚을 약속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默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의 의사가 없는 것이거나, 婚外의 性關係라면 ‘부화방탕’의 행위로 규정되어 비판을 받게 된다.

이제 婚禮式 그 자체는 극히 간소화되었다. 깨끗한 평상복 차림에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 것이 전형적인 혼례식 의상이다. 式은 신부의 집에서 올리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식당에서 올리기도 한다. 대체로 당 간부나 生産組織 또는 소속 직장의 간부가 主禮를 맡게 된다. 주례사는 보통 신랑에게는 부인을 잘 도와줄 것, 신부에게는 남편이 業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夫婦간에 화목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자녀를 꼭 낳아서 당에 충실한 아이로 키울 것이며, 당과 首領에 獻身的으로 服務할 것을 당부하는 訓示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兩家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당일로 신부를 데리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 다음날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오게되는 데, 이때 신부를 맞아들이는 간단한 의식이 舉行된다. 이런 행사가 거행된지 3일만에 사돈간의 교환방문이 있다. 여기에는 우선 신랑집의 부모가 新婚夫婦를 데리고 약간의 음식을 마련하여 신부댁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처가에서 하루나 이틀을 묵은 신부의 부모가 신혼부부와 함께 答禮의 형식으로 신랑의 부모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婚禮式 과정은 모두 끝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북한 全域에 걸쳐 어떤 전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地域的인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歸順者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簡素하게 치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든다. 參席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부조를 하게되는 바, 직장에서는 대체로 회람을 돌려 부조금 액수를 적고 나중에 월급에서 뺀다.

共産化 初期에는 「離婚의 自由」라는 슬로건 밑에서 불행한 결혼의 合意離婚이 許容되었다. 주로 女盟이 주동이 되어 남편의 ‘독재’ 밑에서 고생하는 婦人들의 편을 들어 이혼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政治指導者들이 教育을 덜 받은 本妻를 버리고 도시의 教育을 받은 여성과 再婚하는 수단으로 많이 活用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편이 反革命的인 活動에 가담하였거나 戰爭 중 南下한 경우에는 이혼을 許諾하였고, 한편 이런 “反革命”의 낙인이 찍힌 경우에 黨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 아예 離婚을 기도한 例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물결이 지나가고 나서 1950년대 중반기 이후로는 離婚을 抑制하는 政策的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재판소에 많은 비용을 물리게 하는 식으로 제재가 가해졌다. 合意離婚의 경우에도 이혼수속을 위한 비싼 수입인지 代金을 물어야하고, 부인이 자녀를 養育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물어야 한다.

再婚의 경우에는 男女를 불문하고 비교적 자유롭다. 젊고 자녀가 없는 여자의 재혼은 극히 장려되지만, 자녀를 둔 中年의 부인들은 거의 再婚을 꺼린다고 한다. 남자가 과부와 初婚하는 事例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결혼은 가능한데로 피한다는 점도 전과 별로 다름이 없다.

7. 親族制度의 變化

북한의 社會主義 革命은 기존 社會文化體系의 물질적인 기초로서의 私 有財產制를 폐지하는 등 전통적인 社會秩序에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은 비록 전통적인 기능의 一部를 상실한 채로 그 면모를 달리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더 넓은 범위의 통합으로서의 親族組織은 전체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革命에 걸림돌이 된다고 判斷했음인지 공산화 초기에 이미 철폐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親族組織을 파괴하고 개인의 충성심을 당과 국가에로 돌리려는 組織的인 캠페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실시된 土地改革에서 친족집단들의 재정적인 기초였던 문중재산이 沒收되면서 이미 시작되었고, 1958년에 農業協同化運動이 完了되면서 친족조직은 거의 完全히 마비되고 말았다. 어느 親族集團에서나 마찬가지로지만 통합의 求心點은 공통의 父系 祖上들에 대한 제사였고, 큰 規模의 친족집단일수록 문중제사는 엄청난 규모였다. 문중재산의 몰수로 개개의 가족은 극히 制限된 範圍의 직계조상의 忌祭는 남아 있지만, 門中 단위의 제사는 재정적인 기반의 喪失로 中止되고 말았다.

친족조직이 부락의 社會構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전통적인 氏族部落들에서는 친족조직을 파괴시키려는 정책의 一環으로 有力한 친족원 및 그들의 가족을 다른 地域으로 이주시켰다. 이와 함께 이런 部落들에서는 他姓의 가족원들을 이주시켜 門中の 세력을 弱化시킴으로서 전통적인 친족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協同農場에서는 친족관계보다 農場員으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더욱 重要視되었다.

사실 北韓 當局이 親族組織을 와해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인 것은 전통 사회에서 친족조직이 강한 집단들이 거의 例外없이 兩班 支配層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 이른바 ‘인민의 착취자’로 간주되는 신분계층의 후예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또한 親族組織이 강력한 氏族部落들에서는 우선 人間關係에서 친족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上命下達의 정치교양사업을 실현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것으로 把握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북한 당국은 어떤 식으로든지의 가족주의나 종파주의를 조장할만한 소지를 미연에 除去해버리려는 정책의 하나로 친족집단 및 친족조직의 재정적인 기초를 剝奪하고, 친족원들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政策的인 조치를 취하였다.

歸順者 중의 한사람은 바로 이런 措置의 直接的인 犧牲者였다. 할아버지 代에 大地主였다는 罪로 오빠 세명은 사형당했으며, 부모는 체포당해 어디론가 끌려갔고, 나머지 가족원들은 黃海道, 江原道, 함경북도 등으로 強制 이주당했다. 또한 그의 고향의 다른 親族들도 마찬가지로의 運命에 처했다. 그 자신은 전쟁고아로 간주되어 유자녀학원에서 成長하였으나 1969년에 자신의 배경이 탄로나서 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해 6개월만에 死線을 뚫고 越南의 길을 擇했다고 한다.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는 전통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

산정권은 이제 조상제사를 없애려는 캠페인에 열을 올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그런 캠페인을 持續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즉 門中 公有의 재산이 몰수되었고, 門中 성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과 함께 철저한 여행의 제한은 문중단위의 조상제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農村에서도 부락 밖에 살고 있는 친족원들을 조상제사를 위해 모이는 큰 규모의 모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省墓도 단지 그 산소 주위에 살고 있는 몇몇 자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한다. 만약 멀리 살고있는 친족원들이 조상 제사에 참석하려면 그는 노력공수를 잃을 것이고 당국에서도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浪費’하는 것을 許諾치 않는다.

과거에는 조상이 이룩한 공적의 질과 양은 그 자손들의 團合 및 親族構成員들 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친족원들은 그들의 조상이 이룩한 영예를 친족의 자랑으로 삼았고, 이는 또한 친족집단의 社會的인 지위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져서 과거 조상들이 이룩한 공적들은 바로 자손들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특출한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조상이나 크게 富를 蓄積했던 祖上은 곧 ‘인민의 착취자’로 규정되고, 그들의 자손들은 이로 인하여 ‘불순분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그들의 족보는 바로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령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많은 경우 젊은이들은 그들이 보지도 못한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社會政治的인 차별을 받게되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있는 자손들은 그들의 祖上을 公開的으로 비판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정권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의 사

회적인 地位를 改善할 수가 없다.

이전에 不幸한 처지에 있었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현정권에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제사가 그들의 조상들이 이른바 “인민의 편에 섰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는 전혀 親族關係가 없는 당간부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기제사에 참여하는 풍조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관습으로 북한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즉 종래에 直系子孫만이 참여하던 기제사에 黨幹部가 참석하여 제사가 끝난후에 음복을 같이하고, 그 조상이 살았을 때에 한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의 주제는 “그가 인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또는 “생시에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는 등이지만 사실 이러한 새로운 관습은 조상이 겪은 시련으로부터 利得을 얻을 수 있는 일부층에 한정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과거의 부유층이나 지배층 출신에게는 오히려 자학적인 것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血緣에 기초한 집단 의식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後者의 경우, 그들이 조상제사를 계속하는 한 이는 ‘반동’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아예 제사를 지내기를 피하며, 친족간의 일체의 공동행사를 피하는 경향이다. 또한 친족집단 내에 한사람이라도 반 社會的인 행위로 注目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성원들은 그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意圖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멀리하게 된다.

이제 가족의 레벨에서 거행되는 기제사, 장례식, 혼례식, 회갑 등에 인근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 참여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門中이나 더 넓은 범위의 친족단위의 어떤 집단적인 행사도 북한사회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또한 親族員들은 全國 각지로 멀리 흩어졌고, 이들간의 接觸도 통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도 대면한 적이 없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과거의 有力했던 조상의 存在가 더 이상 子孫들을 하나의 친족집단으로 통합시키는 求心點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친족조직은 거의 消滅되고 말았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父系親族이 배우자 선택에서 外婚의 단위여서 同姓 同本の 사람끼리는 통혼하지 않는 관습이 강하게 지켜졌지만 이제는 이런 관습은 무너지고 同姓同本간에도 婚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젊은이들 간에는 자기 姓氏의 本도 알지 못하는 예가 흔하다고 한다.

맺 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귀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資料를 중심으로 北韓社會의 변화양상을 주로 생활문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보았다. 社會主義 革命은 생산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물질적인 기초의 재편성을 요구하였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社會關係의 재조직이 뒤따랐다.

하나의 체계가 둘로 쪼개졌을 때, 양자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격리된 채로 남아있다면, 時間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자간의 이질화의 程度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北韓 社會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요소의 등장과 함께 社會文化體系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經驗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南北의 골이 이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직 공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異質性보다는 同質性이 양쪽의 文化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社會關係에 있어서도, 비록 물질적인 기초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전통사회의 구조적인 틀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위에서 요약한 데로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南北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社會文化過程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人民이 역사발전의 주체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이라는 이른바 ‘主體思想’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전체주의는 주민들을 ‘觀念의 囚人’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회문화과정은 북한사회를 외부사회로부터 철저히 차단해놓은 閉鎖的인 정책 하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 北韓의 住民들도 외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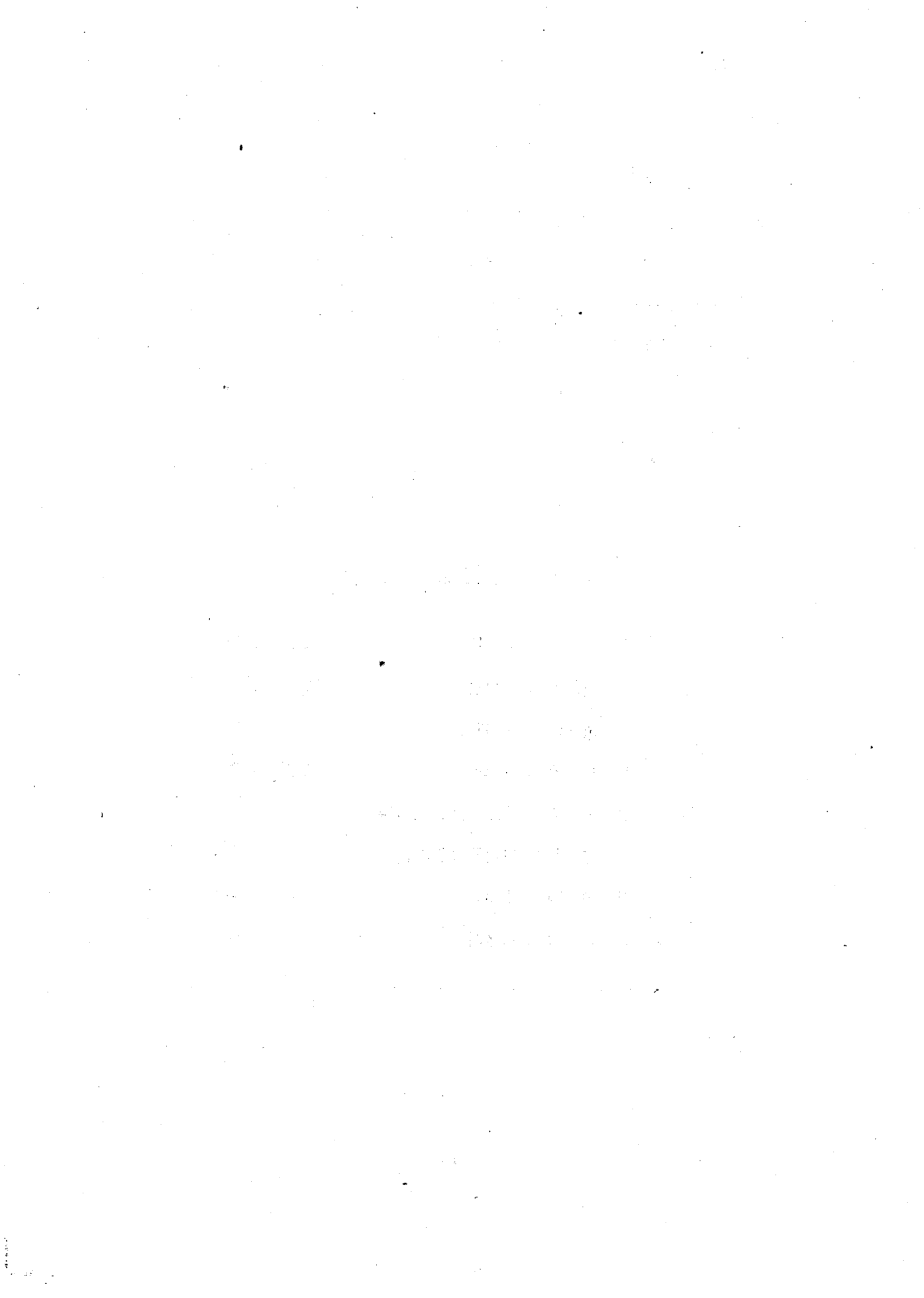
社會文化 요소들에 비록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노출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日本으로부터의 북송교포의 정착, 외국과의 기술 합작 사업, 外國人 觀光客, 해외교포의 모국방문, 海外에 파견된 유학생들, 평양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바깥의 사정이 비록 限定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北韓에 전해지고 있고, 이것들은 모두 北韓의 경직된 社會文化體系에 변화를 위한 자극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 들어와서 동구지역에 유학나온 학생들 중에서 탈출해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역시 社會主義 문화권인 동구 세계와의 接觸 및 비교만으로도 北韓의 경직성과 閉鎖性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最近 北韓實相에 대한

歸順者 證言 內容 要旨

〈 면담 귀순자 〉

- 오 이 섭 (여선부선장, 79년 귀순)
- 강 덕 훈 (외항선장, 82년 귀순)
- 김 운 학 (유 학 생, 89년 귀순)
- 조 승 군 (유 학 생, 89년 귀순)
- 고 운 기 (주 모잠비크통역관, 89년 귀순)
- 서 영 철 (대남공작안내원, 89년 귀순)
- 최 봉 례 (주부, 88년 귀순)
- 임 정 희 (간호사, 89년 귀순)



〈 면담귀순자 〉

오 이 섭 강 덕 훈

〈 '70년대 어촌 및 농촌생활중심〉

- ◇ 농촌지원은 어떻게 하나?
- ◆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가 거의 자매결연처럼 연계되어 있어 공장이 농장을 지원해준다. 연계는 市·郡에서 지정해준다.
지원은, 퇴비만들기에 인분등 제공, 풀베기 지원(농장에 가서)… 농장에는 직장단위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다보면 힘들어서 남의 직장단위에서 베어놓은 풀을 밤에 슬쩍 훔쳐오기도 하여 경비원을 세우기도 했다. “한 사람이 두몫, 세몫 한다”는 것은 한 직장에서 2~3명이 나가서 풀을 베는 것이 직장 전체 몫을 한다는 의미. …
2~3명씩 한주일 단위로 교대해서 풀베기에 동원되었었다.
- ◇ 당시 농촌생활이 都市보다 못하지 않은가?
- ◆ 오히려 農村이 낫다. 농촌에서는 터밭이라도 있어 자기가 심고 거둬수가 있어 먹는 것이 조금 풍족하다.
- ◇ 먹는 문제는 그래도 다른 문제는 都市가 낫지 않나?
- ◆ 76년에 남포 수산사업소에서 농촌으로 가려해도 갈 수가 없었어. 농촌에 안 보내주었다. 남포 수산사업소에서 직장본위여서 안보내준다.

76년이전엔 농촌여자들이 都市로 시집가려 애를 썼는데, 그 후엔 오히려 도시에서 사무원이 안될 바에는 도시 시집생활이 더 어렵다.

76년에까지는 하도 농촌에 안 살려해서 “농촌여자와 결혼하면 남자도 농촌에서 살아야 한다”고 까지 했는데, 그 후에는 농촌에 사는게 먹는 것이 더 풍족해서 안그랬다.

◇ 주택배정은 ?

◆ 농촌문화주택은 1층 한세대 2층 한 세대가 아니라 1·2층 한세대 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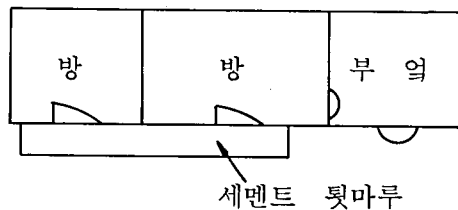
나는 평양 사범대 맞은 편 장평달에 살았었는데 (도면설명), 줄을 맞추어서 세로, 가로가 꼭 같게 집을 지었다.

남포의 경우에는 공장단위로 주택지가 몰려있었다. 어떤 곳엔 단층 연립주택에 네 세대씩 살기도 했다. 아파트 지역은 따로 있다.

아파트가 “외랑식 아파트”라고 불렀는데, 외랑식이란 소련식인데 복도가 밖에서 죽 보이게 있었다. 뒷면은 죽 부엌들.

후포동엔 “색씨야 아파트” (소련어인듯)라고 해서 한 계단에 세 가구씩 마주본다. 이런건 외항선원들이 주로 살고, 방은 2개.

기타 농촌문화주택은 방 2개인데, 미달이를 달아서 두개이지 하나와 같다. 방은 크다. (네평정도).



◇ 당시 농촌지원사업 나가보았나?

◆ 나가보았다. 농촌에 가서 벼도 심어주고 채소도 심어주었다.

농촌에는 채소작업반, 농산반, 축산반, 약채반 등이 있는데, 공장에서 나갈때 ○○반에 몇명, 책임자 누구 식으로 할당된다.

채소반에서 나가면 씨를 뿌리는게 아니라 모종을 하는데, 동작별로 분업화해서 일했다.(구멍파기, 심기, 흙덮기, 물주기, 물나르기 등)

옥수수같은 경우 낫알을 kg으로 정확히 달아서 준다. 파종은 역시 분업으로 한다.

◇ 그때 옥수수 영양단지는 없었나?

◆ 모종처럼 심었다. 공장처럼 대규모로 한것은 아니다. 말은 “영양단지”라 불렀다. 옥수수는 한 구멍에 꼭 두알씩 넣었다.

벼는 냉상모를 가꾸었다. 비닐 하우스를 씌워서 모를 키운다.

◇ 당시 농촌 기계화는?

◆ 아직 기계화가 보급되지 않았었다. 일본에서 모미는 기계를 수입해서 청산리 협동농장과 만경대 협동농장에 들여놓았는데, 기계 사용을 할 줄 모른다는 말로 들려왔다. 혹은 기계로 심으면 수확량이 감소한다고도 했다. 실제로는 못봤다.

수작업은 여기랑 비슷한데, 한 구멍에 두개 이상 심지 않고 한 포기만 심는다. 간격이 좁다. 직장단위로 작업량 할당을 한다.

이북은 마지기, 평 등의 용어는 안쓰고 정보단위만 쓴다.

◇ 지금은 기계화가 되었다는데?

◆ 대신 논갈이, 밭갈이, 씨레질은 다 기계화, 트랙토르를 썼다.

◇ 농촌의 일과는?

◆ 북한 농촌에 대해선 여기서 조금 과장된 것 같다. 그렇게 셋별보기 등이 무작정 강행된 것 아니고, 時間別로 나가서 일하는데, 각 분조마다 時間이 달랐다. 가령 채소분조 1작업반은 몇시에 나와서 무얼 하라는 식의 작업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따로 새벽에 나갈 수도 있다. 모내기, 추수기 등엔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나간다.

이런 때엔 직장에서 나간 지원반이 텐트치고 現場에서 자기도 한다. 식사는 작업터가 농장과 거리가 멀면 現場에 솥을 걸고서 취사하기도 했다. 국 한그릇, 밥 한그릇. 밥 한그릇은 거의 먹는다.

◇ 그런 시기에 農場에서 조금 농작물을 얻어오기도 하나?

◆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혹시 배추 시레기 같은 것이 밭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주워 올수 있지만, 성한 잎을 뜯어낸다거나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삭줍기를 하다가 성한 감자하나라도 나오면 역시 농장에 쥐야 한다. 농장마다 소득수준이 다르니까, 때로 넉넉한 농장에 가게되면 감자같은 것을 찌서 주기도 하더라.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었다. 그런것은 농장원 몫의 부식으로 분배된 것을 준것이다.

옥수수, 쌀의 kg수보다 고구마, 감자는 네배로 쳐 주니까, 그런 몫

에서 상부의 승인을 얻어서 (협동농장 관리인의 승인등) 삶아준다.
이런 것도 결산분배때 다 보고·계산된다. 이런 것도 쉽지 않다. 농
촌에는 생선이 귀하니까, 물고기와 고구마·감자 등을 슬그머니 교
환하기도 했다.(집단 단위로 비공식)

◇ 농촌의 노인도 작업을 하나?

◆ 한다.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쉬운 일을 한다. 일을 하면 ‘공수’를
쳐 주니까 나가서 일한다.

◇ 당시 농촌에 수도는 보급되었나?

◆ 공동수도는 있었다. 개인주택 수도는 없고, 우물이 있다.
개별수도는 도시 아파트에는 있는데, 거기도 물이 귀했다.

◇ 선원아파트는 화장실, 수도 등이 다 되어 있나?

◆ 외항선 선원아파트는 개개로 화장실, 수도가 있고, 온돌이 아니었다.
당간부 사는 아파트는 다 온돌이다. 구공탄(분탄으로 집에서 만든)
으로 불을 땀다.

구공탄 만드는 철제는 부족하니까 공장에서 구공탄도 만들지만 제
대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분탄은 소비가 커서 못때게 했다.

처음엔 구공탄 하루 2개를 원칙으로 했다가, 뒤에는 하루 하나로
제한해서 고통을 겪었다. 그 구공탄에도 진흙도 섞이고 해서 불도 잘
꺼지고…… 그러다 보니 뒷거래, 부정도 있었다.

◇ 가정연료 배정은?

◆ 석유때는 집, 연탄때는 집 다 따로 연료가 배정되는데, 연탄집은 연

탄카드를 가지고 가야 연탄을 산다. 연탄때는 집이 석유를 살 수는 없었다.(뒷거래로 사긴 하지만) 구역별로 연료가 제한되어 고통이 있었다.

구매카드로 사는 것은 구공탄인데, 불이 잘 꺼져서 본탄을 구하려면 부정이 있었다. 혹은 외항선원들은 조금 봐줘서 조금 더 팔기도 했다.(비밀리에) 연료때문에 고통이 컸는데, 진남포는 유리한 점이 있다. 기관차 증착역인데, 기관차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지 않아 조금은 더 뺄 수 있다. 기관차가 버린 ‘재탄’을 조금씩 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재탄’을 구루마로 실어날랐다.

◇ 가정 아궁이는 두개 아닌가?

◆ 두개. 하나는 구공탄, 하나는 나무로 땀다. 나무는 공급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 외항선원은 상류에 해당했나?

◆ 생활의 애로를 느낀 편은 아니다.

◇ 가구는 무엇이 있었나?

◆ 냉장고, 세탁기, 소련제·일제 TV(2대) 등 다 있었다. 소련제는 별 목꾼한테 샀고, 일제는 김일성한테 선물받은 “목란”이다.

소련제 TV가격은 5~600원이었던 것 같다. 외항선원은 한번 나갔다 오면 1,000원정도 배당된다.(월 생활비 별도) 전자레인지만

없었는데, 돈이 없었던게 아니라 물건이 없었다. 사진기도 있는데, 현상을 할 수가 없었다. 필름도 구하기 힘들었다.

◆ 나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필름 현상 인화지를 구할수 없었다. 우리 옆집에는 TV도 있었는데, TV 볼 시간이 없더라. 냉장고 있는 당간부도 보니까 넣어둘 음식이 없더라. 우리는 선원구락부에서 물건을 구할수 있었고, 출항할 때 신는 음식을 집에 줌 주기도 했다.

◇ 외항선원은 우대를 받은 편인데, 내항(어선)선원은?

◆ 외항선원은 배급도 말로 준다. 영양제로 포도주도 한 잔씩 주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까운데는 못주고, 아주 멀리 나가면 주려고 애쓴다. 그런데 술은 귀하니까, 배에서나 마시니까 자꾸 마셔서 취해 사고도 난다. 평양에 처가가 있어 나가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 평양에서는 구매카드 없이도 물건을 파나?

◆ 특정한 날, 카드없이 판다. 평양은 수도니까, 거기만 그런데, 카드없이 파는 날은 새벽부터 줄을 선다. 평양은 아무나 못가지만, 처가가 거기 있고 외항선원은 조금 특별하니까 가서 살 수 있었다. 평양여행은 요즘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당시까지는 평양에 친척이 있고 해서 신청하면 6~7 할은 여행증명서를 떼 줬다. 이렇게 증명서를 떼서 가도 평양 역에서 또 검사한다.

북한엔 전화는 거의 없고 전보는 있는데, 가령 평양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전보가 오면 그 전보를 가지고 증명서를 신청 → 평양에 사

망사실 확인 → 허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

이때도 ○월○일 무슨 역출발, ○월○일 평양 도착 등으로 얻어야 표를 사고, 출근일시까지 정해진다. 공무원도 평양은 출장도 못간다.

◇ 결혼은 대개 어떻게 하나?

◆ 거의 중매인데 연애도 없지 않다. 중매는 친구, 직장상사 주위의 주선이 거의고 남한과 다른 것은 직장장은 部下 중에 미혼 男女가 있는 것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느껴서 주선에 열심이다.

배우자 선택시 성분이 중요시된다. 본인들도 모르는 성분상의 깊은 부분은 신원조회도 해보기도 하고, 당의 견해도 듣는다. 성분때문에 부모가 反對해서 깨지기도 한다.

◇ 사주·궁합등은 보는가?

◆ 사주 보는것도 모른다. 노인이 있는 경우 생일가지고 따질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48년경. 이후엔 거의 따지지 않는다. 따질 줄 알더라도 내색 못한다.

◇ 연애는 어떻게 하는가?

◆ 직장 등에서 눈이 맞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처럼 연애로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진전되진 않고, 주위의 친구들 등을 통해서 관계가 강화된다. 이렇게 주위의 관심을 끄는 단계에서 이미 서로의 성분, 배경등도 알게된다. 이걸 거의 중매와 진배없다. 그러나 8,90%는 두 사람이 눈이 맞기 어렵다.

중매라도 본인이 싫으면 안하고 중매과정에 이미 성분이 드러난다. 성분이 틀려서 결혼이 안되기도 한다.

성분이 차이더라도 黨에서 결혼을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黨員과 地方 집안출신의 결혼은 꺼려한다. 이런 경우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

당이 제재를 해서가 아니라 성분이 자신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스스로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부모들은 사람만 좋으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연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못한다. (하기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

◇ 결혼연령은?

◆ 연령제한은 없다. 단지 당에 입당하고서 결혼하길 원하다 보니 늦어진다. 대학나온 사람이 주로 더 늦게한다.

◇ 예식장소는?

◆ 구식결혼, 신랑이 신부측에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혹은 현대식으로 하기도 한다.

◇ 예복은?

◆ 결혼한다는 확인서를 떼어가면 상점에서 미리 규정된 만큼의 천과 이불감을 준다. 당시까진 유통한복이 흔하다. 본건은 드물다. 면사포 빌려주는 곳도 있다. 죽도리 쓰기도 한다.

◇ 예식관계는?

◆ 신혼여행은 없다. 한 5일 공장에는 안나간다.

예식장은 없고, 집에서 한다. 도시의 경우 회의실이나 식당에서 결혼하려면 년 휴가 12일 중에서 휴가를 받는다.(원래 결혼휴가가 따로 있지만 자진해서 반납한다.)

◇ 주례는 누가 보는가?

◆ 주로 당 간부, 직장 책임자가 한다. 구식으로 가정에서 할 때는 가정 연장자가 한다.

“충성의 맹세”같은 건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냥 한다. 북한에서는 말한마디를 해도 수령 이야기가 빠질 수 없으니까 그냥 충성의 맹세 같은게 된다.

◇ 이혼은 어떤가?

◆ 이혼은 많지 않다. 이혼은 또 힘들다.(이혼도 퇴폐풍조가 없으면 생기기 어렵다-바쁘니까).

◇ 재혼은 어떤가?

◆ 수산부문에는 과부가 많은데, 재혼사례 들어보지 못했다.

이혼은 一方이 성분이 나쁜데 결혼 후에 성분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한다. 성분문제로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당도 쉽게 허락한다.

그러나 최근엔 당이 허락을 잘 안한다. 최근엔 군중관점과 관련해서, 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혼시키기는 하지만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파괴는 몹시 꺼린다. 남자 혹은 여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있다.

◇ 장례는 어떻게 치루나?

◆ 3日장이 주이며 장례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협동농장 같은 곳은 상을 차려 놓는다. 초도 커 두지만 초가 귀하다. 지방은 쓰지 않는다.

장례는 개인별로 하기보다 협동농장은 협동농장 관리위에서, 직장의 경우 직장에서 치른다. 향이 귀해서 연필을 태우기도 한다.

요즘은 제사지내기보다 목도가 많다. 절은 점차 안한다.

상복은 따로 없고 상장을 두르거나 완장(흑 or 백)으로 표한다.

장지는 요즘 도시에선 산소가 따로 없어 지정된 공동묘지에 매장, 화장터는 있지만 화장은 잘 안한다.

장지까지 가는 것은 農村에서는 상여식으로도 하고, 트럭(2.5t)에 싣기도 한다. 도시는 대체로 트럭이며 상여라 해도 곡을 하는 행렬이나 상제가 소리지르고 종을 치는 것은 아니다. 시신에는 그냥 입던 옷을 입혀서 염은 하지 않는다.

시신에는 그냥 입던 옷을 입혀서 염은 하지 않는다.

장례식에는 친척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먼곳의 친척은 못온다.

◇ 제사는 어떻게 치루나?

◆ 1年 후까지는 지낸다. 제수를 차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위에서 와서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 1년 지나면 거의 잊어버린다. 노인네가 있는 집안은 그래도 그 다음에도 지내고, 조금 격식도 차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국이 막지는 않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농촌에는 먹던 음식정도 차려놓고 술 한병정도씩 차려놓는다.

제사에는 친척보다 오히려 가까운 직장사람들이 더 모인다.

1년정도까지는 빈소를 차려둔다. (빈소, 상청등 용어 모름, 소상·대상 용어 모름) 상하나 차려놓고 아침에 물 떠놓고 한다. 이것도 노인 있는 집이나 그런다. 3년까지 하는거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한다.

◇ 성묘는 가는가?

◆ 추석에 성묘간다. 멀리 있으면 못가지만, 가까우면 간다.

◇ 선산은 있는가?

◆ 선산의 경우 옛날에 자기네 소유였다는 경우 인식은 하지만, 협동농장이 나무를 심거나 남이 묘를 쓰는 것 등에 대해 말은 못한다.
(소유권을 주장 못한다)

◇ 구정은 있는가?

◆ 음력을 안쓴다. 구정은 안쓴다. 달력에 음력이 나타난 달력도 있다. 그 달력에는 농사 절기가 표시되어 있다.

◇ 신정은 있는가?

◆ 1월1일 논다. 1월2일은 누가 첫출근을 일찍하느냐 경쟁하다 보니 1월1일 저녁부터 나와 있는 사람도 있다.

◇ 민속놀이는 있는가?

◆ 씨름·그네도 잘 모르겠고, 직장단위로 배구등을 한다. 널뛰기 널을 구

하기도 힘들다.

◇ 전통신앙은 있는가?

◆ 산신을 찾는등 무속을 본적이 없다. 미신을 타파했다고 봐야 한다. 점·부적의 경우 유명하다는 사람 이야기는 조금 들었다. 용강에 점 잘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직업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쉬쉬하며 봐 준다고 하더라. 점 봤다고 소문났다가는 그냥 모가지다.

◇ 수산사업소 직원의 가족은 어떻게 생활하나?

◆ 어느 직장이나 비슷한데, 다 세대주가 있는 사업소에서 일을 한다. 수산부문의 세대주를 가진 가정은 수산가공공장, 냉동공장, 선별작업반 등 수산부문에 가서 일을 한다. 하다 못해 제련소라도 여자들이 일할 거리는 있으니까 - 모든 일을 人力으로 하니까 - 대부분 세대주 직장에서 같이 일한다. 아버지가 수산부문이고 아들이 대학을 못가거나 달리 직장이 없으면 90%는 수산부문에 간다.

◇ 원양어선의 경우 가족은?

◆ 거주장소는 남편에 따른다.(이런 것은 당에서 조치해준다) 이와 동시에 동거주 지역내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해준다. 하지만 여자 직장따라 남편이 옮기지는 못한다. 남자가 자신의 직장을 자의로 결정하지도 못한다.

◇ 여자가 직장을 싫어하면?

◆ 원하지 않으면 집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해서 가사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 동(지역) 여맹에서 직장나가지 않는 여성을 교육시킨다. 집에 있는 여자들이 가정부업을 하기도 하는데, 웨터를 짜서 팔거나 한다. (도시 부인들) - 이때 간판도 내건다. 이 수입이 가장 괜찮다. 이런 주부들끼리 모여서 가내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세금도 낸다) 또 수예, 조화(紙花) 제작도 한다.

판매는 꽃같은 것은 행사때 판다. 어차피 많지 않아서 파는 것이 곤란하진 않다. 주로 직장같은 곳에서 사간다.

웨터같은 것은 편직공장 등의 생산능력이 부족할 때 메워준다. 즉, 주부들이 부업을 원하면 공장에 가서 이야기하여 원사를 얻어다 짜서 공장에 보낸다. 공장에서 댓가를 받는다.(가내부업반)

◇ 소득은 얼마나 되나?

◆ 외항선원의 경우, 月 370~380 원(배를 탈때), 집에 있을때는 160 원 정도, 8개월~1년만에 들어오면 꽤 돈이 크다.

외항선원은 첫 승선때는 모든 의류등을 무료공급 받는다. 그후 3개월마다 의류등을 살 수 있다. 어선의 경우 120 원 월급, 그외 승선기간중의 모든 것은 무료, 작업복·정복 등 무료지급, 가족피복은 사야 한다.

◇ 휴가는 있는가?

◆ 휴가는 년 12日(일요일 제외), 탄광 등은 좀더 쉰다. 그러나 제대

로 쉬어보지 못했다.

기본휴가 외에 보충휴가가 있는 경우도 있다. (탄광, 용광로 등 중노동·외항선원 등) 농촌의 경우 늘면 공수가 없으니 휴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정양소·휴양소 생활은 어떤가?

◆ 선정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 삼석구역 정양소에서 쉬어보았다. 정양소는 잘 먹고 잘 쉰다. 조직생활도 강하지 않다. (독보회 정도는 한다) 정양소에 간 기간동안 임금은 안나온다. (휴가니까) 정양소에 갈 때 배급양식은 다 가지고 간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잘 안가려 한다. 독신들이 잘 간다. 휴양권 받기도 힘들다. 휴양권보다 료양권 받기가 더 힘들다. 료양은 국가에 공훈이 있는 경우니까 월급도 다 나오고, 식량도 다 준다. 고기도 준다.

휴양소에 가서 자기의 돈으로 사먹는 것은 가능하다. 휴양소내의 매점에서 단과류를 사 먹거나, 조금 아이들에게 남겨오기도 한다.

〈 면담 귀순자 〉

김운학 · 조승균 · 고운기

< '80년대 주민생활 및 교육실태 >

- ◇ 식생활 상태는 어떤가 ?
- ◆ 쌀·잡곡비율은 7 : 3 정도이고, 배급량은 인민군이 800 ㄱ, 일반직장이 700 ㄱ, 고등중학생 500 ㄱ
- ◆ 잡곡은 주로 밀쌀, 강냉이 쌀이고 겨울 3개월 정도는 감자도 배급 받았다.
- ◆ 82년 모잠비크 출국당시와 87년 귀국시 평양의 식생활 정도는 오히려 나아진것 같다.
- ◆ 돼지고기는 1주일에 한번, 오리고기·닭고기는 한달에 한번, 쇠고기는 1년에 한번정도 먹는 편이다.
- ◆ 겨울철에는 김장 김치가 중요한 반찬이다.
- ◇ 식당이용상태는 ?
- ◆ 식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전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 ◆ 식당이용은 돈과 양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 ◆ 식당이용 시간은 점심때는 12시~3시까지, 저녁때는 7시~9시까지만 가능하다.
- ◆ 일반주민은 옥류관, 청류관등 고급음식점의 사용은 엄두도 못낸다.
- ◇ 의생활 실태는 ?

- ◆ 일반적으로 구매권을 이용해서 구입하며, 87 년인가 88 년도에는 김일성 배려에 의해서 배급도 있었다.
 - ◆ 학생은 2~3년에 한번정도 김일성 생일선물로 교복을 배급받고 있으며, 작업복은 직장에서 배급받는다.
 - ◆ 대학생의 교복은 넥타이 차림이며, 고등학생 교복은 인민복 형식이다.
 - ◆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무릎아래 내려온 옷을 입는등 조직생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복장을 하나 최근에는 가슴이 약간 파인 옷을 입거나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입기도 해 전보다는 다소 노출된 경향이다.
 - ◆ 양말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기워서 떨어질때까지 신는다.
 - ◆ 하이힐은 「뒹축 높은 구두」라고 하는데 일부가 신기도 한다.
 - ◆ 동구와 비교할때 북한의 의복상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 ◇ 주거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 ◆ 북한에서는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가 더 고급에 속한다.
 - ◆ 아파트에서의 취사연료는 연료카드로 석유나 구공탄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나무를 때기도 하나 전기콘로 사용시는 별금을 물게 되어 있다.
 - ◆ 우리 풍산지방에서는 연탄은 없고 주로 나무를 땀다.
 - ◆ 주택배정은 직장에서 하는데 주택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외부작업동원 1년정도 지나야 住宅을 배정받을 수 있다.
 - ◆ 주택은 주로 한 주택에 몇세대가 살고 화장실은 대개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

◇ 문화생활 실태는?

◆ 평양은 흑백 TV 보급률이 50% 정도 되나, 칼라 TV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 TV가격은 북한제가 500~600 원, 일본 히다찌제품이 680 원 정도이다.

◆ 풍산지방의 경우 인구가 4만 5천명인데, 칼라 TV는 전체 8대 정도였다.

◇ 대학생활은?

◆ 아침 6시~6시반에 집에서 출발하면 저녁 6시~7시가 되어야 그날 학과가 끝난다.

◆ 학과수업이 끝나면 그날 총화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날 일과의 각종 비판이 있다.

◆ 방과후에 친구들과 술마시는 시간은 거의 없고, 영화관이 있어도 거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용 못한다. 간혹 있어도 주로 혁명교육영화이기 때문에 별로 이용 안한다.

◆ 매주 수요일은 영화보는 날로 정해져서 단체로 관람을 한다.

◆ 「주패」를 방과후 친구들과 모여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되면 1년간 노력동원을 해야 한다.

◆ 한때 디스코음악이 유행했으나 지금은 봉쇄되어서 없다.

◇ 결혼 풍속은?

- ◆ 주로 결혼은 신랑집에서 하나 당간부들은 옥류관에서 하기도 한다.
- ◆ 결혼식후 잔치상은 신랑집에서 준비하며,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 명절 실태는 ?

- ◆ 제일 큰 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인데, 이때 이틀 쉬고 육류공급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들뜬 분위기이고 제일 큰 명절이라고 생각한다.
- ◆ 일반적으로 북에서는 김일성 생일은 각종 행사로 동원되고 김정일 생일은 동원이 안되니까 김정일 생일을 더 좋아한다.
- ◆ 명절 다음날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의 선서」를 한다.

◇ 미신에 대해서는 ?

- ◆ 관상·사주·손금 등을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으나 노인들이 재미삼아 보는 경우는 종종 있다.
- ◆ 평양에서 돈을 주고 관상을 본적이 있으나 서로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 신문·잡지등 구독실태는 ?

- ◆ 노동신문은 일반주민은 구독할 수 없고 당간부 집안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교통때문에 몇일 지나가 배달이 된다.
- ◆ 일반 주민은 주로 지방신문을 본다.
- ◆ 대학시절에 「천리마」, 「청년문화」를 본적이 있는데 한 학급에 2권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다.

〈 면담귀순자 〉

서영철 · 최봉례 · 임정희

<최근 주민 및 여성생활>

- ◇ 식량 및 부식배급에 대해 말해 달라.
- ◆ 공작원 시절에는 평시 800 ¢, 훈련시에는 900 ¢을 주었는데 백미와 잡곡 비율은 9 : 1이었다.
- ◆ 개성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식량은 700 ¢을 배급받았는데 그 비율은 3 : 7로서 잡곡은 주로 강냉이였다. 그리고 부식으로 간장, 된장은 1주일에 1번씩 주었고 기름은 월1회 배급 받았다.
- ◆ 고기등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위주로 1인당 돼지나 소고기 500 ¢씩을 배급받았으며 9.9절에도 조금 받았다.
- ◇ 식량 암거래에 대해 말해 달라.
- ◆ 식량암거래는 간혹 있었는데 걸리면 큰 범죄에 해당된다. 혹시 농장원에게 준 터밭 30평에 옥수수·감자등을 심어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기도 팔기도 힘들다.
- ◇ 식당이용은 해 보았는가?
- ◆ 개성시에는 식당이 많이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하여 명절때만 문을 연다. 그리고 국수집, 청량음료점은 평시에도 여는데 12:00 ~ 15:00까지 연다.
- ◆ 대개 식당은 명절때 외식기념정도로만 이용하며 출장은 사람들이 주

로 이용한다.

◇ 衣服사정은 어떠한가?

- ◆ 고급간부들은 일제·프랑스제 양복을 많이 입는데 외화바꿈돈으로 외화상점에서 산다. 일반주민들은 이들이 수입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질서한다.
- ◆ 金正日 지시로 평양시에는 88년부터 무릎위까지 올라가는 스커트도 많이 입는등 서양식이 많이 들어와 있다.
- ◆ 축전과 관련하여 남자들도 반바지를 입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입는다.

◇ 주거실태는 어떠한가?

- ◆ 청진시에서는 4㎡정도의 방 2칸, 부엌하나, 단독식구가 거주하면 부자취급을 받는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 ◆ 난방은 석탄을 쓰는데 함남 이북은 갈탄, 이남은 무연탄, 여름은 나무를 쓴다. 개성은 나무가 없어 옥수수 뿌리등을 모아 난방에 쓴다. 연료공급은 겨울·여름 차이가 없어 여름에 절약해야 겨울에 쓸 수 있다.
- ◆ 가전제품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쓰며 전기공급이 하루 3~4시간 밖에 되지 않아 별 소용이 없다. 평양시는 전기가 항상 공급되나 지역별로는 정전시킨다.
- ◆ 냉장고는 일·홍콩 합작제와 소재가 많으며, 북한도 70년대에 「백두산」등을 생산하는데 질이 나쁘고 대량생산을 못하고 있다. 어떤 집에는 고장난 냉장고도 그냥 두고 과시용으로 쓰고 있다.

- ◆ TV의 경우 평양은 5세대당 1대(흑백)이며 칼라는 「쌍룡」「목란」등이 나오는데 당간부, 재일교포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지방은 약 20%정도로 80세대에 25세대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TV에 흥년인데 만풍년이라고 선전하는등 거짓말이 많아 이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
- ◇ 이북에서 인기가 있었던 TV프로나 映画는 어떤것이 있었나?
- ◆ 일요일에는 외국영화를 보여줘 이때만 보았는데 주로 아이들만 TV를 보며 일요일엔 만화영화도 해준다.
- ◆ TV소설로는 인기있었던 것이 북부 철길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그린 「북방의 겨울」이란 3부작 연속극이었으며 映画로는 「명령 027호」, 「홍길동」, 「사랑 사랑 내사랑」, 「임꺽정」등이 인기가 있었다. 특히 「사랑 사랑 내사랑」은 춘향전 이야기인데 몽룡이 춘향의 저고리 푸는 장면이 있어 인기가 좋았다.
- ◆ 88·89년에는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의식이 약화되어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집단으로 관람시켰었다.
- ◇ 여가생활은 어떻게 보내는가?
- ◆ 여가생활은 거의 없으며 평양에서는 토·일요일 상영하는 외화를 보는 정도이다.
- ◆ 요즈음 처녀들도 노동자라도 시간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등 조금씩 의식이 變化되어 가고 있다.
- ◇ 결혼은 대개 몇살때 하며 연애는 하는가?

- ◆ 김정일은 늦게 가라고 하지만 남자는 27 - 28 세 정도에 하고 여자는 25 - 26 세면 노처녀로 취급당한다.
 - ◆ 연애와 중매는 대개 5 : 5 정도나 연애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회장소는 산이나 밤에 어두운곳에 숨어서 연애한다. 그리고 25 세 넘어야 연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전에 연애하면 날나리 취급을 당하고 男女가 나란히 걸기만 해도 조롱을 받는다.
 - ◆ 성분 나쁜 여자와 결혼하면 출세와 장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성분 나쁜 여자와는 안한다.
 - ◆ 결혼하는 예식장은 없고 간부들은 식당에서 하기도 한다.
- ◇ 북한에서 이혼은 어떻게 하는가?
- ◆ 성분에 따라 차이가 나면 이혼을 해 주는데 자식이 없거나 고부 불화같은 사유는 잘 안해준다. 특히 상대가 政治犯으로 체포되었을 때는 자연 이혼이 된다.
- ◇ 葬禮는 어떻게 치루는가?
- ◆ 상복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강도의 경우 상주가 권을 쓰며 어떤 곳은 팔에 하얀 상장을 두르는 경우가 있다.
 - ◆ 고급 黨간부는 남의 묘를 이장시키더라도 묘지가 좋은 자리를 쓴다. 풍수지리사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노인들이 주로 풍수지리를 보는데 노인들은 공동묘지 내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 ◆ 장례시 참석은 상가의 경우 다 와주길 기대하나 사람들이 많이 못 온다. 장례식이 끝난뒤 와줘도 감사할 정도이다.

◇ 생일잔치는 하는가?

◆ 생일을 쇠긴 된다. 그때는 쌀밥도 지어주고 개성시의 경우는 생일에 미역국도 끓여 준다.

◇ 환갑잔치는 하는가?

◆ 쌀이 없기 때문에 자식 결혼식등과 연계해서 같이 치루는 예가 많다. 黨 간부는 80 세인 8 갑도 지낸다.

◇ 秋夕은 어떻게 지내는가?

◆ 88 년부터 휴무인데 추석에 쉬면 일요일에 보충근무를 해야한다. 추석에는 성묘도 가는데 그전에는 조퇴해야 성묘가 가능했다.

◇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 노출되지는 않지만 점을 치는 사람은 있다. 주로 노인, 할머니들이... 젊은이들도 손금을 재미삼아 본다.

◇ 직장배치는 어떻게 하나?

◆ 대개 단체배치, 무리배치를 하며 간부 자식들만 자기 의사 관철이 가능하다.

◇ 新聞 구독은?

◆ 지방신문은 다 보는것이 아니라 黨 간부쯤 되어야 본다.

◆ 신문은 몇 집에 한부정도 보며 노동신문은 당 간부, 지방신문은 그 지방 간부급, 일반 주민들은 신문 갖다주어도 잘 안본다.

(하기면담은 최봉래, 임정희 대상 중점 면담내용)

- ◇ 이복에서 중절수술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 ◆ 공민증 확인없이 가능하나 시급 산원이나 해당 진료소에서 「후송증」을 발급받아 산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밀려 있어서 병원 의사를 알아야 빨리 해주며 임신 3개월이면 속히 해준다.
- ◆ 중절수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하여 고통이 심하며 대개 수술후 1주 진단이 나오는데 직장에서는 설 수 있다.
- ◇ 피임방법은 어떤것이 있나?
- ◆ 영구피임은 불감증 허리통증, 출혈등 후유증이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며 가락지는 해당 진료소에서 기혼에 한해 해주고 있다.
- ◆ 정관수술은 하지 않으며 경구용 피임약, 콘돔은 없다.
- ◆ 루프는 3년마다 교환하는데 북한제는 출혈도 심하고 요통도 온다.
- ◇ 성교육은 시키는가?
- ◆ 안한다. 언니나 동료들로부터 이야기 듣는다.
- ◇ 성병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평양에 AIDS 환자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며 매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 ◆ 대중탕에서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항생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 ◇ 여성들의 여가생활은 주로 어떻게 보내는가?
- ◆ 남녀관계가 주제인 잡담을 많이 하며 주부들은 부부관계 이야기 까

지도 한다.

◆ 그리고 음식이야기를 주로하며 명절때 지방부근에 놀러가기 위해서나 쌀을 모으거나 돈을 모으기 위해 계모임을 한다.

◇ 야외에서 무엇을 하며 노는가?

◆ 야외에 家族的으로 가면 춤추고 노래한다. 그 경우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 특히 개성의 경우 家族끼리 모임이 많다. 개성시는 애착이 강해 개성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 친정은 자주 가는가?

◆ 가까이 있어도 잘 못가며 타도로 갈 경우에는 더욱더 소원해 진다.

◇ 출산은 어떻게 하는가?

◆ 출산장소는 주로 산원에서 하며 집에서 낳아도 병원에서 왕진와서 방조한다.

◆ 조산소는 없고 산부인과의 조산원이 온다.

◆ 병원의 경우 신생아와 격리시키는데 최근에는 같이 있게 한다.

◇ 산전산후 休暇가 주는가?

◆ 산원에서는 미역국과 밥을 제공해 준다.

◆ 87. 1 부터 150 일을 준다. 월급과 쌀 배급량은 그대로 준다. 그리고 아이용 쌀 100 ㄹ도 따라 나온다.

◇ 신생아는 어떻게 키우는가?

◆ 유아용품은 포대기, 굵은 실로 짠 기저귀가 있으며, 100 일 전까지는

낡은 내의 등을 쓴다.

- ◆ 생후 우유로 양육하는데 대부분은 배급품목인 찹쌀가루, 설탕을 섞은 암죽을 많이 먹이며 이것도 6개월까지만 주는데 진료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배급소에 갖다 주어야 함.
- ◆ 직장탁아소에 위탁했을 시는 세번 정도 수유를 할 수 있다. 암죽을 먹일 경우 탁아소에서 먹여 준다. 수유가능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다.
- ◆ 아이가 아플 때는 엄마가 안고 병원에 가는데 진단서를 내고 간호를 위해 쉬면 40일 이내이면 식량 600g, 월급 70%가 나온다. 진단서를 떼려면 보건직원 3명의 도장이 필요하다.
- ◆ 탁아비용은 월 10 원으로 하루로는 10 전이다.

◇ 여성 생리시 처리방법은?

- ◆ 생리대는 면등 아무거나 삶아서 쓰고 가제가 최고급이다.
- ◆ 일회용 생리대는 있기는 있지만 비싸고 살수도 없다.
한꾸럭에 3원 70전 정도……

◆ 생리휴가는 없으며 생리통이 심할 경우 그냥 쉬면서 참는다.

◇ 일반여성들이 착용하는 속옷은?

- ◆ 가슴띠(부라자)는 세대별로 배정되는데 미혼때만 하고 결혼후에는 안한다. 처녀 가슴이 크면 행실에 의심받아 잘 안한다.
- ◆ 팬티는 체크무늬 팬티가 많다. 형태는 남자와 같이 사각인데 여자는 다리에 고무줄을 넣는다.
속치마는 슬립형과 스커트형이 있는데 나이론 종류가 많다.

◇ 화장품은 무엇을 사용하나?

◆ 분크림 (파운데이션), 연지, 분, 눈썹먹 등을 대개 사용한다.

◇ 북한에서의 미인 기준은?

◆ 얼굴이 달걀형으로서 키는 1 m 65 cm 정도이고 콧날이 서고 쌍꺼풀이 있어야 하며 몸매는 볼륨이 있어야 미인이다.

◇ 약세사리는 무엇을 쓰나?

◆ 브로치만 있었고 목걸이는 거의 없고 반지도 드물다.

◇ 머리관리는 어떻게 하나?

◆ 샴푸는 없고 빨래 비누로 감는다. 최근에는 생머리 (short cut) 가 유행이다.

歸順者의 證言을 통해 본
北韓體制 變化實態 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4 연구관실)

인쇄처 : 양 등 문 화 사
